

공간에 대한 기억을 감각으로 재구성한 추상회화

September 2022 | 한예준 에디터

Page 1 of 2

COVER STORY

공간에 대한 기억을 감각으로 재구성한 추상회화

이달 <까사리빙>의 표지는 아트 테마의 특징호를 기념하며, 국제갤러리의 소속 작가 중 최연소이자 MZ세대 스타 작가 이희준의 작품과 함께했다. 공간의 기억을 색과 도형으로 재구성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나보자.

에디터 한예준 표지 그래픽 아키텍트 로우

Heejeon Lee, 'Rain Drops with Purple Sunlight', 2022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182 x 182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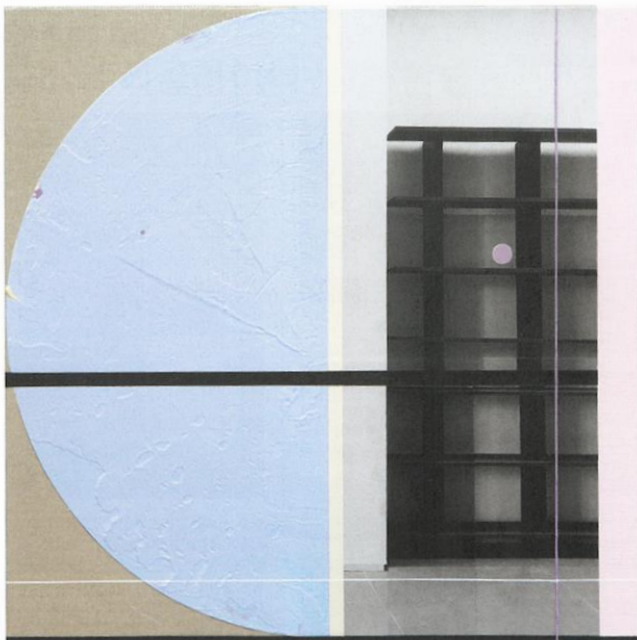
자신이 경험한 공간을 사진으로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을 색과 기하학 도형으로 풀어내는 평면 위의 건축가, 작가 이희준. MZ세대 스타 작가인 그의 회화 *Rain Drops with Purple Sunlight*(2022)와 함께 기하학 도형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공간을 연출해보았다. 레진으로 만든 라벤더 핑크 컬러의 네온 조명 '토템(Totem)'과 핸드 붓터치의 느낌을 낸 시시-타피스(CC-Tapis)의 울 카펫 'Stroke 1.0'은 모두 네덜란드 디자이너 사빈 마르셀리스(Sabine Marcelis)의 디자인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마시모 카스타냐(Massimo Castagna)가 디자인한 벨벳 소파 '오드리(Audrey)'와 원형 디스크 여러 장을 조합한 형태의 커피 테이블 '모네테(Monete)'는 모두 갈로티라디체(Gallotti@Radice)의 제품이다.

지난 5월의 아트부산에서 회화 작품을 5분 만에 완판한 것으로 유명한 MZ세대 작가 이희준(Heejeon Lee, 1988년생). 그는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찾은 고향 서운이 낯선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마주하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A Shape of Taste)* 연작을 시작했다. 자주 가던 카페나 가게가 사라지고 변해버린 건물, 도시의 크고 작은 변화가 낯설어진 느낌과 기억 사이의 감정을 기록하고 싶은 동기를 제 공한 것이다. 이는 형태와 색이 극도로 단순화된 정방형의 추상회화로 표현되었다.

한편 이번 <까사리빙>의 표지에서 선보인 작품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 기억을 자신이 포착한 공간의 사진 위에 섬세하게 구성해내는 형식이다. 2021년 발표한 *(Image Architect)* 포토콜라주 연작이다. 추상회화에서는 색과 면에만 녹아 있던 작가의 기억 속 풍경이 이번에는 구체적 형상으로 노출된다. 작가는 색과 드로잉 라인, 기하학 도형 등을 활용해 면을 분할하기도 하고, 새로운 면을 생성하는 등 회화 속 공간을 자유자재로 설계한다. 평면적 캔버스와 회화의 한계를 오히려 하나의 가능성으로 끌어안으며, 학부 시절부터 지녀온 건축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풀어 가는 작가의 뛰어난 재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또한 익명의 감각을 지닌 도시 풍경이 작가만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개성을 얻고 시각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흑백의 사진 위에 물감을 두껍게 올리고 질감을 강조하는 등의 방식과 형식은 회화적 시도를 넘어 일정 공간에 대한 작가의 기억과 감각, 시간까지 켜켜이 쌓아 올리는 오 브제적 특성의 결과물이다. 마치 벽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거나 시멘트를 미장하듯이 '회화 속 공간'을 시공하는 작가의 회화는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과 리듬, 감각을 일깨우는 세련된 조형미와 컬러로 삶을 향유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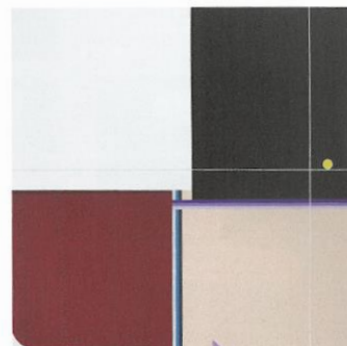
자료 제공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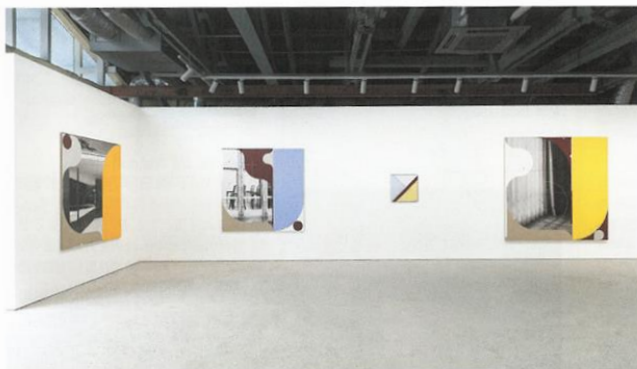
Heejoon Lee, 'Between Grids', 2022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45.5 x 45.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Heejoon Lee, 'A Shape of Taste no.39', 2022
Acrylic on canvas 53 x 5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Heejoon Lee, 'A Shape of Taste no.41', 2022
Acrylic on canvas 53 x 5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지난 8월 14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린 이희준 개인전 (Heejoon Lee) 전시장 설치 전경.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이희준 작가.

이희준은

2012년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조소과를 졸업하고, 2014년 영국 글래스고 예술대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Image Architect)(2021), 레스파스71 (l'espace71) (The Tourist)(2020), 이목화랑 (Emerald Skin)(2017)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아트선재센터(2021),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2019), 유지엄 신(2019), 아이슬란드 아퀴레일리 미술관(2017) 등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있다.

PHOTO: 안현호, 이희준, 이진희, 김지영, 김지현

